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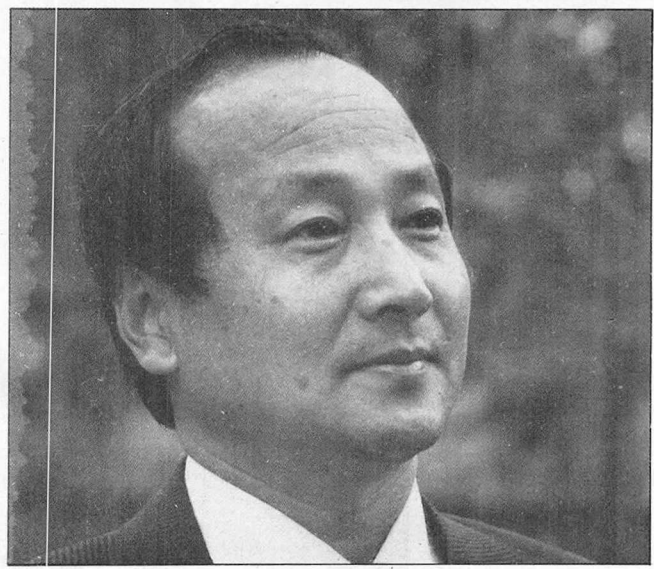
### 3대에 걸친 항쟁역사 그린 서사시 허남기의 「화승총의 노래」

— 시인 李基炯씨

**지금 독자들** 인간은 꿈과 의욕을 잃는 순간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일에 대한 욕심과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이기형옹(72)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서는 젊은이의 패기가 느껴진다. 「시인의 고향」「몽양 여운형」 등의 작품을 발표했고 민족작가협회회원으로 아직도 詩作에 몰두하고 있는 이옹은, 최근 읽은 허남기 시인의 長詩 「화승총의 노래」(민영출판사, 88)를 통해 문학의 깊이와 감동을 새삼 확인케 됐다고 말한다. “1954년 일본에서 출간됐던 이책을 처음 읽은 것은 7년 전입니다.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민족의 역사와 정치적인 사건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이번에 우리말로 번역된 작품을 읽으며 일본어로 읽었을 때와는 또다른 맛을 느꼈지만, 그 밑에 흐르는 작가의 투철한 역사식에서 느껴지는 진한 감동은 변함이 없군요.” 1918년 경남 구포(현재 부산시 구포동)에서 출생하여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일교포시인 허남기씨가 「화승총의 노래」를 발표한 것이 35년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국내에 소개된 데에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이기형옹은 말한다. 동학혁명에서부터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 해방후 미군정과 46년 10월폭동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반봉건·반외세투쟁사를 문학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민족의 정기와 전통을 상징하는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싸움터로 향하는 남편·아들·손자를 마중하며 부르는 할머니의 노래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걸어야만했던 처절한 역사의 증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아, 이 땅에는 눈물이/너무 흔하고/이 땅에는 피와 죽음도/너무 흔하다./아아, 이 땅에는 /침략자가 너무나 많고/이 땅에는 매국하려는 자도/너무 많다”는 할머니의 절규로 집약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감동깊은 구절을 지적해 달라는 부탁에 이옹은 서슴지않고, “준호야,너는 용감하게 떠나거라./이 할머니는 너를 보내고/밤이면 밤마다/이 땅의 산이란 산/이 땅의 봉우리 봉우리마다/별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저 봉화불을 너라고 생각하고,/삼대를 이어져 내려온/이 땅의 남편의 집, 이 땅의 자식의 집,/이 땅의 여인들의 집을/내가 돌아올 그 날까지/조국이 승리할 그 날까지/언제까지든 지킬 것이다”라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힘있게 낭송한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시에서 노래되고 있는 사건들 중 많은 부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세대로서 특히 분단문제에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또 작가의 한사람으로, 민중의 절실한 문제를 어떻게 수준높은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느냐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지요”라고 말하는 이옹에게서 20대와는 같은 시적 정열이 진하게 느껴졌다.

—오애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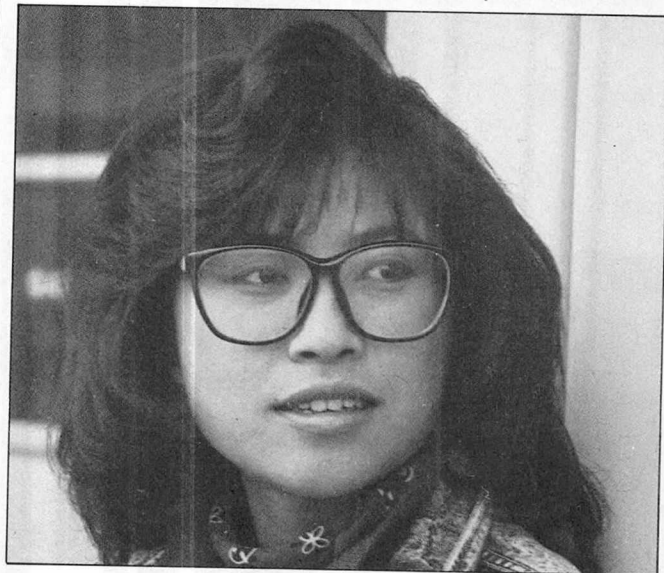
### 사회변동 속의 한국인 가치관 해석 金泰吉의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

— 목사 許南基씨

**지금 독자들** 현대인은 나약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예술 또는 종교에 대한 갈망이 더욱 절실한지도 모른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바른 길을 알게 하기 위한 허남기목사(49·영은교회)의 기도는 그래서 날마다 절실해져 간다. “목사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인 질병을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섬세한 직업입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항상 원초적인 문제로 다가오죠. 좀더 폭넓고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인격 하나하나가 바르게 변화될 때 사회의 부조리도 없어질 겁니다.” 존재에 대한 인간의 불안은 곧 철학의 출발점이자 종교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허목사는, 사회가 건전하게 되려면 개개인의 영혼이 위축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金泰吉교수의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I II 권, 문음사, 86)이 무척 흥미롭다고 했다. 이 책은 李人植의 「血의淚」 이후의 신소설부터 해방전후와 80년대 오늘의 소설까지 두루 망라하면서 한국인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 조명하고 있다. 즉 일반대중의 생활 속에 형성됐던 가치관을 ‘소설’이라는 간접적 자료로 해석한 것. 근대화의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점차 변화해온 가족윤리나 남녀관 등을 분석한 가운데 허목사는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시민의식 변화 부분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저자가 윤리학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도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또 비교적 문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설들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읽기가 수월합니다.” 해방직후의 혼란스런 사회, 70년대의 억압적 상황, 80년대 국민윤리운동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는 책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사람 중의 하나가 목사입니다. 종교서적은 물론 일반 교양서적도 광범하게 흡수하고 있어야지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의 홀린신학대학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받았던 허목사의 다소 아카데미한 강해설교는 평소의 진지한 독서생활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신앙인이 꼭 읽어야 할 에센스로, 신학교 시절 감명깊게 본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들었고, 리처드 F. 로벨라스의 「성령운동의 흐름과 경향」도 신앙의 이론무장을 위해 권유하고 싶단다.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신앙심도 귀중해요. 제가 처음 목회활동했던 곳은 버스도 안다니는 벽촌이었죠. 가난했지만 비품 하나를 마련해놓고 교인들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은 소중한 신앙체험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는 보다 깊은 인간이해를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그런 허목사의 신앙심을 보면서 새삼 종교에 대한 갈망이 떠오른 것은, 존재의 뿌리를 잃은 현대인의 한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던지.

—김지원 기자



## '가상의 역사' 통한 예리한 현실 풍자 복거일의 「碑銘을 찾아서」

— 한국종합전시장 白慶淑씨

지금 독서중

어느 비평가가 자신의 평론집에 '책읽기의 괴로움'이란 제목을 붙인 적도 있지만, 사실 책읽기가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책읽기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책읽기의 결과가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白慶淑씨(26· 한국종합전시장 전시관리부)에게는 책읽기가 언제나 즐겁다.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닥치는 대로" 읽기 때문이다. 문학책이든 사회과학책이든 가리지 않고, 특정작가나 저자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저 쉽게 눈에 띄는 책을 집어들고, 한번 잡은 책은 단숨에 "읽어치운다."

"책을 무슨 심심파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겠지만, 너무 진지한 책읽기만을 요구하는 일 역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독과 속독의 유쾌한 책읽기를 통해 진지한 독후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가 요즘 어느 책보다도 즐겁게 읽는 것이 복거일의 전작장편 「碑銘을 찾아서」(1987). 우리나라가 1980년 현재에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말과 역사가 송두리째 말살된 상태라는 가상의 역사 속에서 '반도인' 주인공이 자신의 민족과 뿌리를 어렵사리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처음엔 낯선 소설기법에 상당히 긴장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재미를 느낍니다. 단순한 재미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날카로운 풍자가 그 소설적 재미 속에 들어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예컨대, 80년대초의 우리 정치를

빛낸 듯이 보이는 일본 군벌정치를 묘사한 부분이라든지, 변절한 민족지도자의 한 전형을 보이는 '하꾸야마'와 주인공 '기노시다'간의 대화 부분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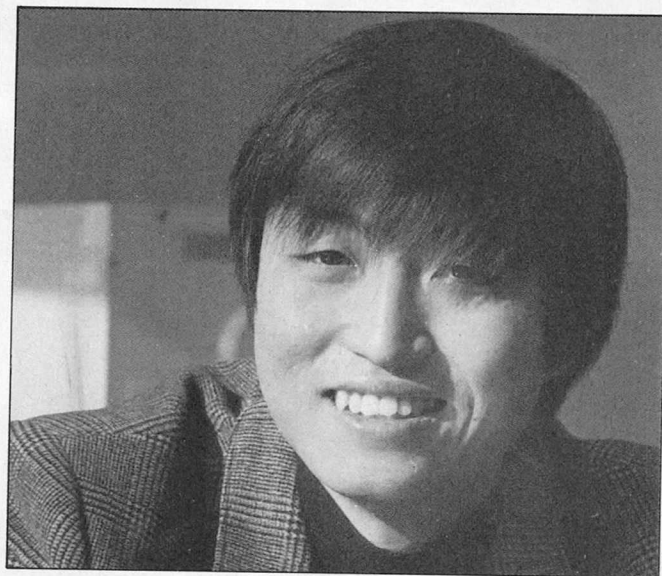
아울러, 백경숙씨는 일반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기발한 착상을 전혀 거부감없이 전달하는 작가의 소설적 솜씨에 대해서도 감탄을 느낀다고. 5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부피에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하는 매력을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일종의 逆유토피아소설적인 알레고리를 질게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한 문장, 잘 계산된 소설적 장치들이 아마 그런 알레고리의 무거움을 잊게 하는 것 같아요."

책읽기의 즐거움만큼이나 일에서도 피곤을 모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백경숙씨가 직장에서 맡아하는 일은 전시장설치 용역사들의 관리업무. 인테리어업체 70개사를 포함, 약 100개사를 상대하는데, 전시회 몇개만 관리하다보면 금방 1년이 다 갈 만큼 바쁜 생활을 4년째 해오고 있다.

장차 결혼을 해서도 직장생활은 계속하겠다는데, 원하는 남성상을 말해주면 지면을 통해 '광고' 해주겠다는 제의에 대해서는 그저 쾌활히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 강철주 기자



## 지체부자유자를 통해본 우리사회 연작소설 「말없는 인형들」

— 소설가 채희문씨

지금 집필중

한 시대의 마지막은 또다른 시대의 시작과 겹치게 마련이다. 78년 이성복의 詩가 모

계간지에 처음 실렸을 때, 그리고 이문열이 79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중편소설 부문에 당선되었을 때 이미 80년대 문학은 시작되었다는 가정에 동의한다면 90년대 문학 역시 벌써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부산하기만 했던 80년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 서 있는 지금, 문단에서는 '새로운 얼굴'을 찾기에 한창이다. 아마 그중에서도 소설가 채희문씨(33)는, 아직은 낯선 이름 가운데서도 선두를 달리는 작가 중의 한사람임에 분명하다. 87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중편소설 「철탑」을 발표하여 등단했으며 다시 88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중편소설 부문에 「병원」이 당선되면서 그 '능력'을 확고히 인정받은 그는, 데뷔한 지 일년도 안된 시점에 첫창작집 「철탑」(삼성출판사)을 펴내 평단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데뷔연도에 비해 작품집을 내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교섭이 왔을 때 한달 반이나 망설이기도 했지요. 얼떨결에 내놓고 보니 준비도 없이 대충 앞에 나선 연사처럼 부끄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십대의 '격정시대'를 마감하고 등단한 사람답게 그의 소설은 신인다운 발랄함보다는 소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소설 한편

한편이 발표될 때마다 평론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그의 이러한 신인답지 않은 '용의주도함'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그가 최근 쓰고 있는 작품은 연작소설이 될 「말없는 인형들」. 그 첫편이 88년 「세계의 문학」 겨울호에 발표되었다.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아를 통해 우리시대의 실상과 허상을 파헤쳐본다고나 할까요. 그들의 시각으로 기성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해보고 싶어요. 정상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예민하게 파악하거든요."

정상인들은 서로 만났을 때 '가면'을 쓰고 얘기하지만, 정신박약아를 대하게 되면 상대방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진솔하게 되고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된다. 작가 채희문씨는 바로 이 순간을 붙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지체부자유자 가운데는 정상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체부자유자가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못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 작품을 구상한지는 일년이 넘었으며 88년에 '장애자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단순한 소재주의의 차원에서보다는 '인간 실존의 문제'까지 파고들어가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충분히 개방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알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현장'을 찾아서 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에 충실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 생활 속에서 문학을 찾는 거죠."

— 남진우 기자